

경구풀이 아닌 禪의 도리로 해석

“반야심경 독송할 때 감응 마음공부 차원 높아져야”

26년전 한글로 쉽게 풀어 경전의 바른 이해 펼쳐

불교 모든 경전 가운데 핵심이라 불리는 <반야심경>. 한국의 불자들이 의식 때마다 빼놓지 않고 독송하는 <반야심경>은 중국의 현장(600~664)법사가 번역한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의 약칭으로 대만바 600부를 260자를 함축한 것이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있어 독송을 하면서도 그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

불교계에서 한문 예불 의식문 번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 대행 스님은 경전의 한글화를 통해 자성을 믿고 생활 속에서 깨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행 스님은 “팔만대장경을 가로 꿰고 세로 꿰다 하더라도 한번 실천만은 못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실천공행하는 것을 가르쳤지, 말을 배우라고 한 것은 아니다. 한문 용어도 현실적으로 바꾸어야 이해가 가고 마음에 감응이 되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체 이 마음 한군데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경구해석을 해도 반드시 내면으로 귀결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행 스님은 불자들이 예불 때 봉독하는 <반야심경>과 <천수경>의 뜻을 내면의 마음을 밝힐 수 있는 내용으로 새롭게 뜻풀이를 필요성을 느꼈다. 이후 1980년대 초부터 <반야심경>과 <천수경> 뜻풀이에 정성을 기울였는데, 그것은 글자풀이가 아니라 묘한 선(禪)의 도리에 의해 풀어놓은 것이다.

“뜻으로 풀이한 경전 세계로 나가야 한다”

대행 스님이 1980년대 초부터 <반야심경>과 <천수경> 뜻풀이 하는 것을 본 한 신도가 “왜 힘든 일을 굳이 하시느냐”고 여쭙다. 스님이 “지구를 이대로 두면 얼마 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이 열린 세계로 나아가야만 하고, 이 걸 본 사람들의 차원이 높아져서 지구를 구할 인연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1980년대 초반, 한 마음선원 사무장을 맡은 후 이재형 거사는 대행 스님의 지시로 틈나는 대로 선실로 올라가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읽어 드렸다. 스님이 그 뜻을 새롭게 해석해 내려주면 이 거사가 해석을 받아 꼼꼼히 정리했다. 그런 다음, 스님에게 거듭 묻고 정리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 스님의 마지막 허락을 받고 비로소 대중에게 1987년 <뜻으로 풀 반야심경>과 <뜻으로 풀 천수경>을 보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 마음선원의 스님과 재가자는 물론 어린이까지 1980년대부터 <뜻으로 풀 반야심경>과 <뜻으로 풀 천수경>을 독송해왔다.

또한 1990년대에는 <뜻으로 풀 금강경>이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대행 스님은 <화엄경> 뜻풀이를 위해 오랜 시간 작업하느라 다리가 많이 쇠약해지기도 했다. <화엄경>은 70%정도 풀이 됐다.

조계종은 의식문 한글화 작업을 하면서 2011년부터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내놓았다.

자신의 마음을 깨치는 수행의 길잡이

대행 스님은 수행방법 역시 현대에 맞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생활에서 좌선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행 스님의 뜻으로 풀 한글 경전은 불자들에게 예불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치는 수행의 길잡이가 돼 주고 있다. 스님은 평소 법문에서 한글 경전의 의미를 설명하곤 했다.

“글자 하나를 가지고도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세 가지 네 가지로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아마 전부 다른 말이 나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 부처님 법이란 부처님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있어서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그건 왜냐? 여러분이 다 부처님인데 어느 한 사람만 지적해서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없는 게 부처다’라는 얘깁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뜻으로 풀 반야심경>이나 <뜻으로



풀 천수경>을 외울 때 그 뜻이 여러분의 생활에 그대로 해당되는 것을 알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무(無)의 법과 유(有)의 법을 함께 하면서 여여하게, 찰나찰나 한 발 한 발 떼어 놓으면서 가고 움이 없는 그 법을 지금 외우면서 또 배우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1988년 11월 27일 법문에서)

“여기서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뜻으로 풀이해 놓은 것은, 여러분을 마음공부를 시키려면 그것도 전부 개선을 해서 뒤집어 놔야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 당대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경전이 수없이 나오다 보니까, 편지를 하다 보니까 그냥 기록으로 자꾸 자꾸 글자 풀이만 해서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93년 9월 5일 법문에서)

대행 스님의 <뜻으로 풀 반야심경>은 외국인에게도 반향을 일으켰다. 뉴욕 롱 아일랜드의 태권도 도장에서 설법하실 때 미국인 수련생들이 <뜻으로 풀 반야심경>을 독송 했는데, 당시 미국인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느낀바 있어 그 후 각자의 체험담을 적어 스님께 봉정하기도 했다.

이내은 기자

대행 선사의 뜻으로 풀 반야심경

두루 차고 깊은 지혜 한마음은 밝았으니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두루 살피 자재로이
행하시는 한마음이
죽은 세상 산 세상 한데 비추어 보시니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共生),
공심(公心), 공용(公用), 공체(共體),
공식(共食)하며
고정됨이 없이 나투고 회하여 돌아가건만
그것을 몰라서 일체 고(苦)의 길을 걸나니라.

사리자여,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마음은 모든 물질적 현상과 다르지 않나니
모든 물질적 현상은 곧 한마음으로
쫓아 있나니라.

느끼는 생각과 행하는 의식도
또한 둘이 아니어서 이와 같나니라.

사리자여,
우주 생명과 모습은 본래 생겨났다
없이졌다 함도 없으며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나니라.

이런 고로 고정됨이 없는 차원의 물질도
둘이 아닌 까닭에 없나니
감각·지각·의지적 행동·인식작용도
따로 없나니라.

눈·귀·코·혀·몸·뜻도
따로 고정됨이 없으며
형상·소리·냄새·맛·감촉·법도
따로 고정됨이 없으며
보이는 세계와 의식 세계까지도
따로 고정됨이 없나니라.

죽지 않는 것도 죽는 것도
또한 둘이 아닌 고로 없으며
높고 죽음도 없고
또한 높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나니라.
은갖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까지도 없으므로
지해도 깨달음도 얻을 바가 없으니
없는 까닭은
일체 고정된 것이 없이
화(化)하여 찰나 찰나 나투는 까닭이니라.

자유인의 한마음은
깊은 무(無)의 세계에 회전하며
일체 걸림이 없나니라.
마음에 걸림이 없는 고로 두려움이 없으며
뒤바뀐 헛된 꿈 같은 생각을 떠나서
본래부터 영원한 밝음의 구경에 이르렀나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마음 자리를 깨달아
가장 높고 밝은 지혜를 얻어
생사를 초월하고 자유 자재의 경지를
성취하셨나니
마땅히 알라.

깊은 미지의 지혜로운 한마음이야말로
가장 신비하고
가장 밝고
가장 당당한
위 없는 심경이므로
이 깊은 미지의 주문은 진실하여
허망치 않음을 알라.
일체 고난에서 벗어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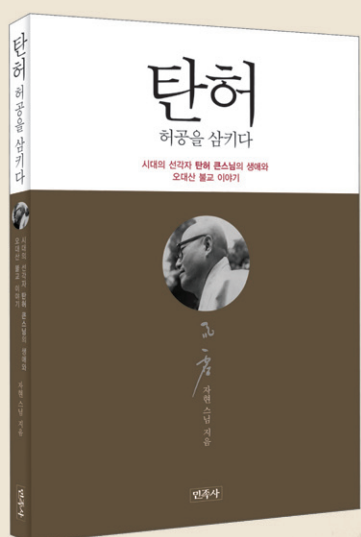
이에
깊은 한마음을 깨닫는 주문을 설하노니,

발 없는 발로 길 없는 길을
어서 어서 벗어나세
우리 함께 벗어나세
이승 저승 없는 마음
어서 어서 벗어나세
한마음의 깨달음은
그대로 여여하게 밝았으니
“우리 함께 어서 어서 벗어나세”(세번)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

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蜜多時 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舍利子 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即是空 空即是色 受想行識 亦復如是
舍利子 是諸法空相 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
是故 空中無色 無受想行識 無眼耳鼻舌身意 無色聲香味觸法
無眼界 乃至 無意識界 無無明 亦無無明盡 乃至 無老死 亦無老死盡 無苦集滅道 無智 亦無得
以無所得故 菩提薩埵 依般若波羅蜜多故 心無罣碍 無罣碍故 無有恐怖 遠離顛倒夢想 究竟涅槃
三世諸佛 依般若波羅蜜多故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故知 般若波羅蜜多 是大神呪 是大明呪 是無上呪 是無等等呪 能除一切苦 真實不虛
故說 般若波羅蜜多呪 即說呪曰
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提 娑婆訶
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提 娑婆訶
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提 娑婆訶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씻기지 않는 이름 탄허, 그리고 탄허 스님을 품은 오대산 불교 이야기



“대한민국이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것이다.” “21세기에는 여성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 “법당 100채를 짓는 것보다 스님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탄허 큰스님의 가르침!

<탄허, 허공을 삼키다>는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 업적을 되새려 미래의 꿈과 좌표로서 한국불교 발전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는 나침반과도 같은 책이다. 이 책은 스님의 생애와 시대정신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고,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도 소개하고 있어 탄허 스님이라는 큰 그릇을 품을 수 있었던 오대산의 문화적인 배경과 그 깊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탄허, 허공을 삼키다 - 시대의 선각자 탄허 큰스님의 생애와 오대산 불교 이야기
저: 현 스님 지음 / 264쪽 / 13,500원 / 무선(신국판)

5월 17일 오전 11시 부처님 오신날 특집 다큐 <탄허, 화엄의 길> KBS1 TV 방영 예정



한국불교의 자존심 한암 큰스님

한암 스님은 27년간 동구불출하면서 수행에 임했으며, 재물에 철저하고 승가회원과 대중화합에 투철한 올곧은 수행자였다. 자신의 몸을 던져 상원사를 수호하였으며, 좌탈입망으로 수행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 주었던 한국불교의 자존심이다.

이 책은 한암 스님의 정신과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여 실천하고자 만들어진 일화집이다. 생전에 추석하셨던 오대산 월정사를 중심으로 수집한 스님의 행적과 자료, 한암 스님 회상에서 수행했던 스님과 재가자 25명의 인터뷰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한암 스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리운 스승 한암스님 - 한국불교 25인의 증언록
김광식 지음 / 412쪽 / 15,000원 / 양장(신국판)



구입 문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중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ksa.org 이메일 minj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ksa 동점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